

종교자원 관광명소화 · 활성화 기대

전주시, 천주교 · 기독교 · 불교 등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 막바지 단계 돌입

전주 치명자성지에 조성된 천주교 세계평화의 전당에 이어 내년 2월이면 불교 세계평화명상센터와 기독교 근대역사기념관까지 완공될 예정이어서 종교문화시설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주시는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 등 종교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체험공간 확충을 위해 추진되는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이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불교의 경우 내년 2월 세계평화명상센터가 만성동 서고사 주변에 건립된다. 서고사는 후백제 경원이 국운의 회복과 안정을 위해 창건한 곳으로, 역사적 가치와 의미가 큰 곳이다. 명상과 순례의 기능을 구비한 세계평화명상센터에는 전주를 한국적인 종교 평화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목적 아래 전통사찰의 정신문화 확산에 적합한 복합교육관과 다양한 명상체험 생활관, 다목적 평화명상파크 공간 등이 구축된다.

기독교의 경우 내년 2월 전주예수병원 인근 다가산 기슭에 근대역사기념관이 완공된다. 주변에는 선교사 사택과 선교사 묘역, 의학박물관, 호남 최초의 교회인 전주서문교회, 호남지역 최초의 병원인 예수병원, 1919년 3·1 운동을 주도한 신홍학교가 있다.

근대역사기념관은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2758.25㎡ 규모에 전북지역의 근대 선교 역사에 관련된 기록과 유물 등의 전시와 세미나, 교육, 공연, 영상물 상영 등이 이뤄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며진다.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 전당 조감도.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는 전주 대성동 치명자성지에 천주교 순교자의 정신을 계승하는 세계평화의 전당이 건립됐다. 세계평화의 전당은 지상 3층, 연면적 9359㎡ 규모로 전시장인 모두네홀과 4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컨벤션홀, 행사 및 공연 등을 위한 복합문화시설, 76개의 객실, 강의실, 세미나실 등을 갖춰 교육과 연수,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세계평화의 전당은 인근 한옥마을과 연계해 천주교 순례객뿐만 아니라 시민, 관광객들의 휴식과 회복을 위한 공간이자 전주의 대표 대중문화 관광지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지난 10월 개관 이후 약 1만5000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알

려졌다. 시는 이 같은 종교문화시설을 활용해 종교문화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인 한옥마을과 전라강영, 풍남문 등 역사문화자원과 구도심 지역의 결고 싶은 거리, 영화의 거리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이 완공되면 국가 관광 거점도시로 선정된 전주시의 종교자원 관광명소화와 한옥마을 등과 연계한 관광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일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동네책방 2곳, ‘책콩20’ 수익금으로 도서 기증

고래의 꿈 · 소소당, 수익금 일부 ‘지혜의 반찬’ 사업 후원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에 참여한 동네책방들이 수익금 일부로 마련한 도서를 아동복지시설에 기증하기로 했다.

전주시 서신동 소재 동네책방 고래의 꿈(대표 강성희)과 송천동 소재 동네책방 소소당(대표 김정숙)은 30일 전주시장실을 찾아 취약계층 어린이들에게 줄 도서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은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에 참여했던 두 동네책방이 수익금 일부를 소외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희망도서를 지원하는 ‘지혜의 반찬’ 사업에 후원키로 하면서 마련됐다.

두 동네책방은 0세부터 7세 아이들의 마음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책을 엄선해 ‘전주영아원’에 100만 원 상당의 도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가 독서문화 확산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 17일 시행한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은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매할 때 정가의 20%를 포인트로 받아 할인받고 12개 시립 도서관에

서 책을 대출한 후 반납할 때마다 1권당 50포인트(원)를 적립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래의 꿈과 소소당을 포함한 32곳의 지역서점이 참여하고 있다.

강성희 대표는 “작년 이맘때쯤 책방 문을 열었지만, 코로나19 등 여건이 좋지 않아 책방 운영이 쉽지 않았는데,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 참여를 통해 책방도 알리고, 책방을 찾는 고객들도 많이 늘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데 큰 힘을 얻었다”며 “작게나마 지역사회에 환원해 나눔의 기쁨을 전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전통한지 생산시설’ 조성 내년 4월 공식 개관

전주시, 83억원 투입 서서학동 흑석골에 준공

과거 전통한지의 대표적인 생산지였던 전주시 서서학동 흑석골에 전주한지의 원형보존과 한지의 세계화를 이끌 전통한지 생산시설이 들어섰다.

전주시는 ‘한지골’로 불리며 전통한지의 제조·생산의 맥을 이어온 흑석골 일원에 전통재료와 방식을 지키며 최상품의 한지를 제조하는 시설인 전통한지 생산시설 건립 공사를 준공했다고 30일 밝혔다. 흑석골은 예로부터 명품한지공장이 밀집했던 곳으로, 전통한지 제조·생산의 맥을 근대까지 이어온 곳으로 손꼽힌다.

총 83억원이 투입돼 2년여 간의 공사 끝에 완공된 전통한지 생산시설에는 전통방식 한지제조 및 체험공간과 기

획전시공간 등이 마련됐다.

건물 1층의 경우 국내 최대 규모인 한지제조공간으로 지어졌으며, 초지·도침·건조 등 한지 제조 일련의 과정을 재현해 한지를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건물 2층은 기획전시실과 사무공간, 야외공용공간이 조성돼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지역 한지공방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한지 연구자, 한지조형 예술가, 장인 후계자, 일반 시민들에게 전주한지의 역사와 실용성 등을 알리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시는 개관에 앞서 전시실 콘텐츠를 기획하고 한지제조공간의 내부 집기 및 유물 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내년 4월 시설을 공식 개관할 계

획으로, 개관에 앞서 전시실 콘텐츠를 기획하고 한지제조공간의 내부 집기 및 유물 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전통한지 생산시설이 개관하면 고품질 한지를 생산하는 새로운 거점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한지 제조와 체험, 전시 등을 통해 한지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전통한지 생산시설의 정밀한 작업과 한지 장인들과의 협력을 통해 한지 제조 기술을 바로잡고 우수한 전통 한지 제조 기법을 복원해나간다는 구상이다.

시는 생산시설이 구축되고, 관련 지자체·전문가·장인들의 협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전통한지 원형보존과 2028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등 한지의 세계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코로나19 실직자 우울·불안 개선사업 ‘장관상’

장기화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전주 시민의 우울과 불안 개선을 위해 추진된 자살예방사업이 정부로부터 우수사업으로 인정을 받았다.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박태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와 구직자의 우울·불안 개선을 위해 추진한 경제적 취약계층 대상 사업 ‘RE:Start-UP(리스타트-업)’ 담당자가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RE:Start-UP(리스타트-업)’은 전주 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난 2019년부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협력해 실·구직자의 심리지원에 대해 취업상담을 받기 위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한 실·구직자 중 우울감이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위기대상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 △긴급지원제도 신청 △사례관리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사업은 대상자의 우울과 불안을 개선하고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줌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극단적 선택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실·구직자가 늘어남에 따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에서 매주 2회(월·목) ‘찾아가는 마음치유 상담소’를 개설·운영하고, 106회의 캠페인을 통해 약 860명에게 전문상담 등 심리안정을 지원해 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 매월 2회 ‘슬기로운 마음

건강’이라는 주제로 총 1250명에게 취업특강도 실시했다.

박태원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우울·불안·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정신건강사업이 위기상황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센터는 앞으로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자살위험 탐지와 안전망을 구축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위협받는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자살을 예방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울·불안·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063-273-6996)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들과 소통 간담회

전주시는 지난 29일 전주시장실에서 13곳의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올 한해 장애인 돌봄에 힘을 쏟은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장애인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돌봄서비스 강화 구축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는 집단감염에 취약한 시설에서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해준 덕분에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내면서 돌봄 공백이 최소화되는 등 한 해 동안 시설종사자들이 보여준 헌신과 사명감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또한 시설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및 생활 현장의 의견 청취를 통해 종사자들의 좀 더 나은 근로환경 개선 및 장애인 돌봄 공백 강화 방안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다.

시설 종사자들은 내년부터 전북 최초로 주간보호시설 종사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원해 주는 시에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현장에서 더욱더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장애인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